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14회)

## 전도관 제6편

### 이만제단 시대 제3부

#### 차례

전도관 제6편

이만제단시대 제3부

一. 감람나무

二. 감람나무란?

- 1) 이기신 하나님인 구세주의 대명사
- 2) 굵은 벼룩과 빛난 세마포옷
- 3) 두 감람나무 또는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

#### 가. 감람나무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영모님은 감람나무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 나무는 감정이 없다. 나무를 베어가도 막 때리며 못살게 굴어도 어떠한 감정도 나오지 않는다. 반면 나무는 생명체들이 내뿜는 탄산가스를 다 흡수하고 생명체들을 살리는 산소를 한없이 내뿜어 준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였다. 중생(重生)한 자의 성품은 나무같은 성품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 나. 감람나무는 굵은 기름인 아슬은혜로 이루어진 분이요, 향취가 진동하는 분이다

굵은 기름은 완성된 최고의 은혜인 이슬은혜로써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6000년만에 회복한 최고의 무기이다. 이러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나타나신 분이 감람나무이다. 다시 말하지만 감람나무는 이기신 하나님인 구세주의 대명사로써(호14:5, 습4:11-12) 무적장수이며 승리대장이다.

이슬은혜를 이루고 출현하신 분이 감람나무라는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만 백합꽃 향기 같은 향취가 진동한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이슬은혜를 내리시며 백합꽃 같은 향취를 진동시키시는 박태선 영모님이 감람나무임을 자연히 깨닫게 되었다.(호14:5)

이미 앞에서 이슬 같은 성령은 3단계의 성령 중 마지막 완성된 성령으로서 박태선님이 처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하고...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 내리는 두 금관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스기라 4:11-12)”

위 성경말씀과 같이 감람나무를 통하여 굵은 기름이 줄출 흘러내리고 있다고 하였다. 기름은 성령을 말한다. 그렇다면 굵은 기름은 무엇인가? 굵은 기름은 기름 중에서도 최고의 값진 기름이다. 그러면 최고의 값진 성령을 말하는데 최고의 값진 기름이라는 것은 완성된 성령인 이슬성령을 말하는 것이다(기름=성령; 요1서3:27).

완성된 이슬 은혜가 나라는 것은 완성된 존재의 출현을 말하므로 이슬은혜가 감람나무를 통해서 쏟아져 내린다는 것은 감람나무가 완성된 존재임을 뜻한다. 이 이슬은혜는 백합꽃 같은 향취를 동반한다(호14:5-6). 그런데 이와같이 이슬은혜가 나리고 향취가 진동하는 일이 박태선님을 통해서 되어지니 모두들 박태선님이 감람나무라고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박태선 영모님이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를 하셨지만 실은 감람나무는 이기신 하나님인 구세주이고 가짜구세주인 예수를 멸하는 진짜 구세주인 것이다.

#### 2) 굵은 벼룩과 빛난 세마포옷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박태선 장로님은 분명 성령의 삼단계를 받은 감람나무 원체이시다. 다시 말하면 완성된 성령인 이슬은혜를 받은 분이시다. 그

러나 감람나무 원체와 감람나무 가지는 은혜 수준의 차이가 엄청난다는 사실이다. 감람나무 원체의 은혜수준이 가지보다 월등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으나 사실은 그 반대가 된다. 다음의 성경구절을 보자!  
“...내가 나의 두 증거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가 1260일을 굵은 벼룩을 입고 예언하리라. 이는 이 세상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묵11:2-3)”

여기의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 원체는 분명 ‘굵은 벼룩’을 입는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완성된 이슬성령으로 이루어져서 감람나무 원체로 출현한 분이시지만 그 감람나무 원체는 완전히 이루어진 완성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 성경 구절 속에서 감람나무 원체는 분명 굵은 벼룩을 입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감람나무 원체는 완전한 이슬성령을 처음 받아 출현하였지만 불완전한 이기자로 출현하게 된 것을 말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감람나무 원체는 원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당신의 가지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성경구절을 보자!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라...그 아내가 은혜를 받아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細麻布)를 입었은즉...(묵19:6-8)”

그 아내를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였다. 이 세마포 옷은 분명 감람나무 원체가 입은 굵은 벼룩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은 분명 완벽하게 완성된 존재를 말하고 굵은 벼룩은 불완전하여 미완성된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람나무 원

체는 미완성된 원체이므로 그 감람나무 가지가 출현하여 완성된 존재가 되어야만 원체도 구원을 받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박태선 장로님은 3신앙촌에 가서 하시 말씀이 “이긴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지옥이야!”라고 하시면서 단에서 눈물까지 흘리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박태선 장로님이 비록 감람나무 원체인긴 하지만 당신은 미완성자요 당신을 통해서 출현하는 가지가 완성자가 되어서 구세주로 출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람나무 원체이신 박태선님은 당신의 가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설명이 이해가 되지 잘 되지 않으시더라도 끝까지 이 글을 보시면 자연히 이해가 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랴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처 넘어지리라.”(호14:9)

#### 3) 두 감람나무 또는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

영모님은 감람나무를 증거하면서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로 출현할 수도 있고 한 감람나무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두 감람나무로 나타내면 악조건이고 한 감람나무로 나타내면 호조건이다’라고 하였다. 어찌 되었건 두 감람나무로 출현할 수도 있고 한 감람나무로 출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이와 같은 영모님의 말씀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격양

유혹에는 영모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

萬世不變安心處 末世二樹或一人  
만세불변안심처 말세이수혹일인  
萬世春光一樹花...〈弄尸歌〉  
만세 춘광일수화 농공가

“천만년 가도 변치않는 안심처에 말세의 주인공으로 두 감람나무이거나 혹은 한 감람나무로 오시는구나. 만세의 춘광(春光)즉 세 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어 오시는 구세주는 마치 한 감람나무에 핀 한송이 꽃과 같구나  
주해) 봄 춘(春)자는 세 분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이다. 즉 삼인일(三人日)이다.

남사고 선생도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로 오실 수도 있고 또는 한 감람나무로 오실 수도 있다고 예언하고 있다. 또 한 세 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어 오시는 구세주(春)는 마치 한 감람나무에 핀 한송이 꽃과 같다고 예언하고 있다.

여기서 박태선 영모님이 한 분으로 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또 다른 감람나무가 출현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한 분의 감람나무를 만났으니 분명 악조건이 아니고 호조건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한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두 가지를 키우게 되어 있다.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 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다. 가로되 이는 기름발리운 자 풀이니 온 세상에 주를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습14:11-14)”  
여기서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와 또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감람나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두 감람나무나 또는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도 지적한 것 같이 박태선 영모님 한 분의 감람나무만 출현해 계시니 분명 위 성경구절 중에서는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감람나무로 출현한 박태선 영모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두 가지를 키우게 되는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비밀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 때문에 예수 같은 가짜가 출현하여 온세계를 미혹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진짜가 출현하시게 되면 가짜 구세주 예수는 거꾸러져서 빛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이다.(창49:16- 참조)\*

-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겨라
-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

#### 도덕경 해설

## 反也者 道動也

반야자 도동야

###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며

#### 도덕경 40장 해설

이 세상은 크고 작은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해서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했다. 이 고해에서 벗어나 우리를 괴롭과 죽음이 없는 행복한 이상향의 세계로의 항해를

인간이면 누구나 소망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이상향을 설정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한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될까? 높은 지위에 오르면 될까? 더 많은 돈을 벌면 될까? 인간의 행복에의 집요한 집착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견될 수가 없다. 그 까닭은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본래 이상향에서 살

았던 경험적 요소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물음에 여실히 답하고, 본래 인간의 근본자리로 되돌아가기를 중용하는 참뜻이 도덕경이 전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가 무엇인가 아는 것은 노자의 골수를 얻었다가 되고, 뼈와 살을 얻었다가

되어서 그와 온전히 하나를 이루었다가 되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시다시피 노자는 시종일관 도를 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도의 본 자리로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덕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인 것이다.

도덕경 연재를 시작하면서 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서두에 충분히 밝혔다. 하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을 못 느끼듯, 사람이 공기를 마시며 살면서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 노자는 독자가 도덕경을 읽으면서 도가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도에 대해 상기하고자 이 장을 열지 않았을까?  
노자가 후학들에 대한 심심한 배려와 사람을 한번 헤아리는 차원에서 도의 실체를 더더욱 깊이 음미해 본다면 의미가 새롭다 할 것이다.

反也者 道動也(반야자 도동야):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며

본래 우주 만물과 인간이 하나의 상태였으며, 빛으로서 영원불멸의 순수한 식을 띤 희열에 찬 존재였었다. 이러한 우주탄생 이전의 상태가 바로 도의 세계(이상향)라고 하며, 인간과 우주만물의 근본자리가 된다. 이 도의 근본자리로 되돌아가려는 일체행위가 수행이며 도덕경의 존재 목적인 것이다. 인간이 인간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를 이루고, 인간과 우주만물이 하나된 일체사상을 갖게 될 때, 그 자는 도통을 하게 되는 것이다.

弱也者 道用也(약야자 도용야): 유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며

걸로 드러난 도의 움직임은 약한 듯 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살리는 속성을 띤다. 그래야만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강하고 딱딱한 것은 부러지고 파괴하는 속성을 띠므로 생성, 쇠퇴, 멸망의 외길로 치달게 되고 결단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

天下之物生於有生於亡(천하지물생어 유생어망): 하늘 아래 땅 위에 만물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생명체가 생겼다는 것이다

시원의 세계는 이러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도 아니었으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순수한 빛의 세계였다.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세계로 표현한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우주 가운데 인간은 시원의 세계를 회복하는 주체인 것이다. 하루빨리 도를 닦아 인간의 순수본성이 되는 진선미(眞善美)의 성품으로 회복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된 영원무궁한 생명의 빛의 세계로 되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